

『傷寒六書·傷寒一提金』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金峰鉉·申榮日*

The Study on the 『SangHanIlJeGeum』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金峰鉉·申榮日

The SangHanIlJeGeum(傷寒一提金) explain the six channel of disease. The Greater Yang controls the construction and defence, and governs the exterior of the body, which serves as the body's external barrier. Accordingly, many of the signs associated with greater yang appear in the early stages of disease. The essential features of greater yang disease are a pulse that is floating, headache, stiffness and pain of the head and nape, heat effusion, and aversion to cold.

The main feature of Yang brightness disease is yang hyperactivity and heat exuberance. An evil can directly enter the yang brightness channel from the exterior, but it usually passes into the channel from the greater yang. Yang brightness diseas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generalized heat effusion, spontaneous sweating, aversion not to cold but to heat, and a pulse that is large. Distinction is made between a heat pattern and a repletion pattern.

key words : SangHanIlJeGeum, The Greater Yang, heat effusion, spontaneous sweating.

I. 緒 論

『傷寒一提金』은 陶華¹⁾의 著作으로 『傷寒六書』

* 交信著者: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330-3511, maggie@dsu.ac.kr

1)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庵이며 餘杭人이다. 洪武 2年(1369年)에 태어나서 正統十年까지(1445年) 77歲를 生存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百家에 널리 通하였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에게서 秘藏한 醫籍을 받고 軒岐의 醫術에 정통하였으며 傷寒論에 대해 研究精進하여 奧妙한 이치를 깨닫고 새로이 發明한 것이 많았다. 永樂年間(1403-1424)에 醫學訓科에 나아갔고, 宣德年間(1426-1435)에 벼슬에 올랐다. 陶氏는 일찍이 杭州에서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切脈에 精通하여 古法에 絜미이지 않고 證에 따라 새로운 處方을 創方하였으며, 奇異한 疾病이라도 손을 쓰면 바로 나았기 때문에 '陶一帖'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의 第4卷에 속해 있으며, 傷寒病의 證候와 脈象과 用藥에 대해 提綱과 格言의 방식으로 論술하여, 단번에 황금과 같은 綱領을 거머질 수 있다는 의미로 '一提金'이라 하였다.

本編은 4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第1章 一提金啓蒙에서는 의사가 알아야 할 基本 지식, 六經病 提綱, 診脈法, 治法, 用藥法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서술하였고, 第2章 一提金六經證治捷法에서는 六經의 見證法, 辨證法, 診脈法, 用藥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第3章 一提金脈要에서는 脈의 이치와 浮中沈 三部의 診脈方法 및 맥에 따른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구별법을 설명하고, 進退脈, 伏脈, 可解不可解脈, 歇至脈, 躁亂脈에 대하여 主病과 治法을 서술하였으며, 第4章 一提金

貫珠數에서는 正傷寒과 類傷寒의 구별, 계절에 따른 傷寒治法, 表裏證의 구별과 治法, 陰陽證의 구별과 治法 및 厥證 溫病 暑病 躁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發黃 斑疹 衄血 譫語 鄭聲 陰陽易 結胸 痞氣 合病 并病 등에 대하여 證候 脈治法을 格言形式으로 설명하고 있다.

本篇의 내용이 비록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脈證合參을 중시한 傷寒論의 정신을 이어 外感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특히 診脈과 辨證하는 要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 本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黃瑾明, 傅錫欽 點校 人民衛生出版社의 『傷寒六書·一提金』을 기준하였다.
2. 原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傷寒論 條文은 脚注처리하고 찾기 쉽도록 뒤에 조문번호를 ()로 제시하였다.
3. 註釋가운데 內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은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4.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5. 翻譯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6. 번역문에서는 한글을 使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 한자로 명시하였다.
7. 可讀力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문단을 나누었다.
8. 本 研究에 使用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引用文獻에 『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III. 本 論

1. 一提金啓蒙

【原文】

余謂初學醫者는 先熟⁽¹⁾藥性하고 次明經絡하고 再識病名然後에 講解脈理하여 以證其所生病하고 證脈相同이라야 藥無不應이라 病家云發熱惡寒 頭項痛 腰脊強하면 則知病在大陽經也. 身熱日痛 鼻乾不得眠하면 則知病在陽明經也. 胸脇⁽²⁾痛 耳聾 口苦舌乾 往來寒熱而嘔⁽³⁾하면 則知病在少陽經也. 腹滿咽乾 手足自溫 或自利不渴 或腹滿時痛하면 則知病在太陰經也. 引衣踰臥⁽⁴⁾ 惡寒 或舌乾口燥하면 則知病在少陰經也. 煩滿囊縮하면 則知病在厥陰經也. 潮熱 自汗 譫語發渴 不惡寒反惡熱 揭⁽⁵⁾去衣被 揚手擲足⁽⁶⁾ 하고 或發斑黃 狂亂 五六日不大便하면 則知病在正陽明胃腑病也. 設若脈證不明하여 誤用麻黃하면 令人汗多亡陽이요 誤用承氣하면 令人大便不禁이요 誤用薑附하면 令人失血發狂하니 正爲寒涼耗其胃氣하고 辛熱損其汗液하고 燥熱助其邪熱하니 庸醫⁽⁷⁾ 殺人이 莫此爲甚이라

【字句解】

- (1) 熟: 積練習, 익힐 숙.
- (2) 胸脇(흉협): 앞가슴과 늑골이 있는 옆구리의 총칭.
- (3) 嘔: 吐也, 토할 구.
- (4) 踰臥(권와): 팔다리를 모으고 몸을 쪼그리고 자는 것. 踰: 不伸, 몸오그릴 권.
- (5) 揭: 高舉 높이들 걸.
- (6) 揚擲(양척): 들어올려 던짐. 揚: 날릴 양, 擲: 던질 척.
- (7) 庸醫(용의): 용렬한 의사.

【國譯】 : 省略

【原文】

傷寒之邪는 實無定體하여 或入陽經氣分하면 則太陽爲首하니 其脈必浮하여 輕手便得이요 或入陰經血分하면 則少陰爲先하니 其脈必沈하여 重手方得이라 浮而有力無力으로 是知表之虛實하고 沈而有力無力으로 是知裏之寒熱하고 中而有力無力으로 是知表裏緩急하니 脈有浮沈虛實하여 證乃傳變不常이라 治之之法은 先分表裏寒熱陰陽虛實標本하니 先病爲本이며 次病爲標니 先以治其急者가 此爲上工이라 問證以知其外하고 察脈以知其內로대 全在活法二字니 不可拘於日數

라 但見太陽證在 直攻太陽하고 但見少陰證在 直攻少陰하고 但見真寒이면 直救真寒하고 但見三證具면 便作主張하여 不必悉具나 當如何處治니 此爲活法이라

【國譯】：省略

【原文】

若同而異者¹⁾ 明之하고 似是而非者²⁾ 辯之하여 在表者³⁾ 汗之散之하고 在裏者⁴⁾ 利之下之하여 在上者⁵⁾ 因而越之하고 下陷者⁶⁾ 升而舉之하여 從乎中者⁷⁾ 和解之하고 直中陰經者⁸⁾ 溫補之라 若解表不開면 不可攻裏니 日數雖多나 但有表證而脈浮者⁹⁾ 尚宜發散이니 此事不明하면 攻之爲逆이니 經에 云一逆尚引日이요 再逆促命期라하니라 若表證解而裏證具者¹⁰⁾ 不可攻表니 日數雖少나 但有裏熱證而脈沈實者¹¹⁾ 急當下之니 此事不明하면 禍如反掌이니 經에 云邪熱未除에 復加燥熱이면 抱薪救火¹²⁾矣라하니라 如直中陰經眞寒證이나 然이나 無熱 惡寒不渴하면 急宜溫補요 切禁寒涼이니 此事不明하면 殺人甚速하니 經에 云非徒無益이요 而反害之라하니라 陰證似陽者¹³⁾ 溫之하고 陽證似陰者¹⁴⁾ 下之하여 陽毒¹⁵⁾者는 分輕重下之하고 陰毒¹⁶⁾者는 分緩急溫之하여 陽狂者¹⁷⁾ 下之하고 陰厥者¹⁸⁾ 溫之라 濕熱發黃¹⁹⁾者는 利之下之하고 血證發黃²⁰⁾者는 清之下之하여 發斑者²¹⁾ 清之下之하고 譫語²²⁾者는 下之溫之하여 痞滿者²³⁾ 消之瀉之하고 結胸者²⁴⁾ 解之下之라 太陽證似少陰者²⁵⁾ 溫之하고 少陰證似太陽者²⁶⁾ 汗之하여 衄血²⁷⁾者는 解之止之하고 發喘者²⁸⁾ 汗之下之하여 咳嗽者²⁹⁾ 利之解之라 正傷寒者³⁰⁾ 大汗之下之하고 感冒暴寒者³¹⁾ 微汗之微下之하여 勞力感寒者³²⁾ 溫散之하고 溫極病者³³⁾ 微解之下之니 此經常之大法也라

【字句解】

- (1) 陽毒: 疫毒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病證으로, 『金匱要略』에서는 陽毒이 발병하면 얼굴에 비단무늬 같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咽喉가 아프며 膿血을 뱉는다고 하였다.
- (2) 陰毒: 疫毒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病證으로, 『金匱要略』에서는 陰毒이 발병하면 얼굴과 눈이 푸른색을 띠고 곧장을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고 咽喉도 아프다고 하였다.
- (3) 濕熱發黃: 濕邪와 熱邪가 섞여 發黃하는 것으

로, 『傷寒全生集』에서는 전신이 아프고 發熱口渴 小便不利하며 안색은 그을린 황색을 띠며 어둡다고 하였다.

- (4) 血證發黃: 『傷寒全生集』에서는 환자의 몸이 노랗고 脈이 沈結하며 小腹이 그득하고 단단하며 小便은 自利하고 大便은 黑色이며 미친 듯하다고 하였다.
- (5) 譫語(섭어): 陽明實熱 혹은 溫邪가 營血로 들어 熱邪가 神明을 요동하므로 인해 神志가 맑지 못하고 미친 듯이 말을 하는 것.
- (6) 衄血(육혈): 코피를 흘리는 것.

【國譯】

【原文】

有病一經에 已用熱藥하고 而又用寒藥은 如少陰證에 用白虎湯 四逆散寒藥者하고 少陰證에 用四逆湯 眞武湯熱藥者니 庸俗孤⁽¹⁾疑하면 詎⁽²⁾能措手哉리오 嗚呼라 能察傷寒之證名 而得傷寒之方脈이 如此親切이라야 乃爲良醫라 是知寒藥治少陰은 乃傳經熱證也요 是知熱藥治少陰은 乃直中陰經之寒證也니 辨名定經하고 明脈識證하여 驗證用藥이라 眞知在表而汗하고 眞知在裏而下하고 眞知直中陰經而溫하야 如此而汗하고 如彼而下하고 又如彼而溫하야 辛熱之劑를 投之不差면 寒涼之藥을 用之必當이니 病奚逃乎리오 須分輕重緩急과 老少虛實과 久病新發과 婦人胎產과 室女經水니 大凡有胎產而傷寒者는 不與男子傷寒同治法이요 無胎產者는 治相同이요 婦女經水適斷適來에 寒熱似瘧者는 卽是熱入血室이니 但當和解表裏라 久病者는 過經不解하니 壞證也며 新發者는 始病也요 老者는 血氣衰하고 少者는 血氣壯이요 緩者는 病之輕하고 急者는 病之重이라 寒藥은 熱服하고 熱藥은 涼服하고 其中和之劑는 溫而服之라 戰汗⁽³⁾分爲四證이니 要知邪正盛衰요 類傷寒⁽⁴⁾四證이니 照常法則治之라 雖云發蒙이나 實登仲景之梯階⁽⁵⁾也니 余雖專傷寒科나 必出乎庸俗誇⁽⁶⁾誕⁽⁷⁾之醫萬萬이며 且余一生所畜肺腑家私니 語句方法이 俱已備載發揮라 窺⁽⁸⁾我門墻者 雖有多人이나 然이나 片言不繁之要를 不得하여 再四經自講明 故로 述啓蒙捷⁽⁹⁾法脈要貫珠⁽¹⁰⁾數語 一一關注하고 明白所示라 自宜謹慎深密하야 勿授受於非人하고 毋輕泄於澆薄이라야 莫負我之用心耳라

【字句解】

- (1) 狐：妖獸, 여우 호.
- (2) 詎：豈也, 어찌 기.
- (3) 戰汗：外感熱病的 과정 중에 갑자기 戰慄이 발생하고 이어서 진신에 땀이 나는 것.
- (4) 類傷寒：傷寒과 유사한 發熱性 疾患.
- (5) 梯階(제계)：사다리와 섬돌.
- (6) 誇：誣也, 큰소리할 과.
- (7) 誕：妄爲大言, 남을속이는큰소리 탄.
- (8) 窺：小視, 엿볼 규.
- (9) 捷：疾也, 빠를 침.
- (10) 貫珠(관주)：詩文을 꿰을 때 잘된 詩句의 옆에 치는 꼬리표.

【國譯】：省略

2. 一提金六經證治捷法

2-1. 太陽經見證法

【原文】

頭項痛 脛脊強 發熱惡寒 惡心은 是足太陽膀胱經受證이니 假如先起惡寒者는 本病이요 已後發熱者는 標病이라 若有一毫頭痛 惡寒身熱이면 不拘日數多少라고 便宜發散이라야 自然熱退身涼하니 有何變證이리오

辨證法

表虛自汗者는 爲風傷衛氣니 宜實表요 表實無汗者는 爲寒傷榮血이니 宜發表라

診脈法

脈浮緊有力은 爲傷寒이요 脈浮緩無力은 爲傷風이라

用藥法

冬月正傷寒엔 用升陽發表湯 卽加減麻黃湯이요 冬月傷風엔 用疏邪實表湯 卽加減桂枝湯이라 春秋無汗엔 用羌活沖和湯發表요 有汗엔 用加減沖和湯實表이라 夏月無汗엔 用朮朮湯이요 有汗엔 用前加減沖和湯이라

【國譯】：省略

2-2. 陽明經見證法

【原文】

目痛 鼻乾不眠 微惡寒은 是足陽明胃經受證이니 假如先起目痛 惡寒身熱者는 陽明經本病이요 已後潮熱⁽¹⁾自汗 譫語發渴 大便實者는 正陽明胃腑標病이니 本宜解肌요 標宜急下⁽²⁾대 只看消息用之라

辨證法

目痛鼻乾 微惡寒 身熱은 病在經이요 潮熱自汗 譫語發渴 便實 不惡寒은 病在腑라

診脈法

脈見微洪은 爲經病이요 脈見沈數은 爲腑病이라

用藥法

微惡寒 自然目眩⁽²⁾痛 鼻乾不眠者엔 用柴葛解肌湯 卽加減葛根解肌湯이요 渴而有汗不解者엔 如神白虎湯 卽加減白虎湯이요 潮熱自汗 譫語發渴 揭去衣被 揚手擲足 斑黃狂亂 不惡寒反惡熱 大便實者엔 輕則大柴胡湯이요 重則三承氣選用이니 俱在秘方六乙順氣湯內하니 加感治之라

【字句解】

- (1) 潮熱(조열)：熱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일정한 때에 발생하는 것.
- (2) 目眩(목광)：眼窩(안와)주변에 있는 골격을 말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眉棧骨(미릉골) 아래에 있는 것을 顛骨(졸골)이라 한다.

【國譯】：省略

2-3. 少陽經見證法

【原文】

耳聾⁽¹⁾脇⁽²⁾痛 寒熱 嘔而口苦는 是足少陽膽經受證이니 假如先起惡寒身熱 耳聾脇痛者는 本病이요 已後嘔而舌乾 口苦者는 標病이라 緣膽無出入⁽³⁾하야 病在半表半裏之間엔 止⁽³⁾宜小柴胡一湯加減하야 和解表裏治之요 再無別湯 本方自有加減法이라 此經有三禁하니 不可汗下吐也라 若治之得法이면 有何壞證이리오 常須識此하야 宜當審焉이라

辨證法

耳聾脇痛 寒熱 嘔而口苦舌乾은 便屬半表半裏證이니 不從標本하고 從乎中治라

診脈法

脈見弦數은 本經證이라

用藥法

耳聾脇痛 寒熱 嘔而口苦舌乾者엔 用柴胡雙解飲 卽加減小柴胡湯이라

【字句解】

- (1) 聾: 耳不聞聲, 귀먹을 능.
- (2) 脇: 兩膀, 갈비 협.

【國譯】: 省略

2-4. 太陰經見證法

【原文】

腹滿自利 津不到咽 手足溫者는 是足太陰脾經受證이니 假如先起腹滿咽乾者는 本病이요 已後身目黃은 標病이라 內有寒熱所分하니 不可混治하고 臨病之際에 用在得宜라

辨證法

腹滿咽乾 發黃者는 屬腑熱이요 自利不渴 或嘔吐者는 屬臟寒이라

診脈法

脈見沈而有力은 宜當下요 脈見沈而無力은 宜當溫이라

用藥法

腹滿咽乾 手足溫 腹痛者엔 桂枝大黃湯 卽加減桂枝湯이요 身目黃者엔 茵陳大黃湯 卽加減茵陳湯이요 自利不渴 或嘔吐者엔 加味理中飲 卽加減理中湯이요 重則回陽救急湯 卽加減四逆湯이라

【國譯】: 省略

2-5. 少陰經見證法

【原文】

舌乾口渴는 是足少陰腎經受證이니 假如先起舌乾口渴者는 本病이요 已後譫語 大便實者는 標病이라 至陰經則難拘定法이니 或可溫而或可下라 陰分直中者는 寒證이요 傳經者는 熱證이니 是其發前人之所未發也라

辨證法

大要口渴舌乾 渴而譫語 大便實者면 知其熱이요 須詳嘔吐 瀉利不渴 或惡寒腹痛者면 別其寒이라

診脈法

脈見沈實有力이면 宜當下요 脈見沈遲無力이면 宜當溫이라

用藥法

口渴咽乾 渴而譫語 大便實 或繞⁽¹⁾臍硬痛 或下利純清水 心下硬痛者는 俱是邪熱乾屎使然이니 急用六乙順氣湯라 分輕重下之 卽承氣湯有加減法요 無熱惡寒 厥冷踈⁽²⁾臥不渴 或腹痛嘔吐 瀉利沈重 或陰毒手指甲脣青 嘔逆絞痛 身如被杖 面如刀刮⁽³⁾ 戰慄者는 俱是寒邪中裏使然이니 急用回陽救急湯溫之 卽四逆湯有加減法라

【字句解】

- (1) 繞: 纏也, 엮어 맬 요.
- (2) 踈: 不伸, 몸오그릴 권.
- (3) 刮: 揩把, 긁을 괄.

【國譯】: 省略

2-6. 厥陰經見證法

【原文】

煩滿囊卷者는 是足厥陰肝經受證이니 假如先起消渴煩滿者는 本病이요 以後舌卷囊縮者는 標病이라 亦有寒熱兩端 하니 不可概作熱治라

辨證法

煩滿囊卷 消渴者는 屬熱이요 嘔吐涎沫 不渴 厥冷者는 屬寒이요 似瘧不嘔 清⁽¹⁾便이면 必自愈라

診脈法

脈沈實者^는宜當下^요 脈沈遲者^는宜當溫^{이요} 脈浮緩者^는病自愈^라

用藥法

消渴煩滿 舌卷囊縮 大便實 手足乍冷乍溫者^엔 急用六乙順氣湯下之 卽承氣湯有加減法^요 嘔吐涎沫 或四肢厥冷不溫過乎肘膝 不渴 小腹絞痛 嘔逆者^엔 急用茱萸四逆湯溫之 卽回陽救急湯自有加減法^라

【字句解】

(1) 清: 罔으로 통한다. 罔: 칩간 청.

【國譯】: 省略

3. 一提金脈要

【原文】

或人^이問曰治傷寒^엔 先明脈證^{이니} 脈證不明^{이면} 取方無法^{하고} 脈證既明^{이면} 工中之甲⁽¹⁾ 卽夫脈之一字^는 實先天後天之造化^니 何爲先天^{이며} 何爲後天^{이며} 何爲脈也^요 答曰人之陰陽^이 卽爲先天^{이요} 人之氣血^이 卽爲後天^{이니} 脈者^는 非血非氣^요 乃血氣之先^{이니} 卽營行之道路^라 又問曰既知先後天之脈理^{코대} 須明持脈之要^라 曰舉 曰按 曰尋三字^{라하니} 若此不明^{이면} 則陰陽表裏虛實^을 何以別之^{리요} 持脈者^는 輕手循之 曰舉^요 重手取之 曰按^{이요} 不輕不重 委曲⁽²⁾ 求之 曰尋^{이라} 初持輕手候之^{하야} 脈見皮膚之間便得^을 曰浮^니 是太陽經脈也^라 有力者^는 主寒邪在表^{하야} 無汗爲寒傷營血^{하야} 表實者^니 宜汗之^요 無力者^는 主風邪在表^{하야} 有汗爲風傷衛氣^{하야} 表虛者^니 宜實之^라 脈附於肌肉之下 筋骨之間而得^을 曰沈^{이니} 是三陰經脈也^라 其三陰俱是沈脈^{이로대} 妙在指下有力無力中分^{이니} 有力者^는 主熱邪在裏^{하야} 爲裏實^{이니} 宜下之^요 無力者^는 主寒邪中裏^{하야} 爲裏虛^니 宜溫之^라 不輕不重^{하야} 中而取之乃得^{하고} 其脈應於血肉之間^은 陰陽相半^{이라} 若見微洪^은 是陽明經脈也^라 主邪在表多裏少^{하니} 宜解肌^요 若見弦數^은 是少陽經脈也^라 主邪在半表半裏^{하니} 宜和解^라 前之所云陰陽表裏虛實寒熱^은 俱在浮中沈三脈有力無力中分^{이니} 有力者^는 爲陽爲實 爲熱^{이요} 無力者^는 爲陰爲虛 爲寒^{이라} 若浮沈中之不見^{이면} 則委曲而求之^{리니} 若隱若見 則陰陽伏匿之脈也^니 三部皆然^{이라} 或^이曰君之了然^{이니} 非

庸俗所能識也^니 其三脈中^에 有進退焉^{하며} 有伏脈焉^{하며} 有可解不可解焉^{하며} 有歇⁽³⁾ 至焉^{하며} 有燥亂⁽¹⁾ 焉^{하니} 請備言其所由^{하노이다} 答曰脈大者^는 爲病進^{이니} 大則邪氣勝而正氣無權^{이요} 脈緩者^는 爲邪退^니 緩則胃氣和而邪氣無權^{이라} 何謂伏脈^고 一手無脈^을 曰單伏^{이요} 兩手無脈^을 曰雙伏^{이라} 若病初起頭痛 發熱惡寒而脈伏者^는 緣陰邪陷於陽中^{하야} 不得發越^{이니} 此欲汗而當攻之^니 使邪氣退而正氣復^{이면} 脈自至而病自除^라 如欲雨 則天鬱熱^{이러가} 晴霽⁽⁴⁾ 天^{이라} 乃反涼之可見也^라 若七八日以來^에 別無刑剋證候^{하고} 或昏冒不知人事^{키나} 或脈全無者^는 此欲汗而勿攻之^니 如六合陰晦⁽⁵⁾ 雨後庶物皆甦^{하니} 換陽之吉兆也^라 何謂可解不可解^요 脈浮緩在表者^는 以汗解之^요 脈沈實 在裏者^는 以下解之^요 脈沈遲 在裏者^는 以溫解之^라 且夫浮汗^과 沈下而溫^은 固其宜也^니 然^{이니} 浮宜下^{하고} 沈宜汗^{하니} 其故^는 又何耶^오 答曰浮而下者^는 因大便難也^니 設使大便不難^{이면} 豈敢下乎^며 沈而汗者^는 因表有熱也^니 設使身不發熱^{이면} 豈敢汗乎^{리오} 何謂歇至^요 如寒邪直中陰經^{한대} 溫之而斷續者^가 爲歇至^라 何謂燥亂⁽¹⁾ 且因汗下後^엔 脈當靜^{이로대} 今反盛者^를 曰燥亂⁽¹⁾ 卽大凶之兆也^라 然則君子言有所據乎^아 吁^라 難言也^니 此出經常大法之格語也^라 客^이 欣然起而謝^{하고} 曰子雖白首無窮^{이니} 生乎仰慕^라 不意邂逅⁽⁶⁾ 幸獲開予茅塞⁽⁷⁾ 卽正謂鼯鼠⁽⁸⁾ 而發千鈞⁽⁹⁾ 之弩⁽¹⁰⁾ 甚所不當^은 可謂切而磋 琢而磨者也^라 較^{한대} 今庸俗^은 實醜鷄⁽¹¹⁾ 坎蛙⁽¹²⁾ 不知甕外之有天^{하며} 井外之有天^{하며} 井外之有海耳^라 感君發明於後^{하니} 豈非再來人乎^{리오} 遂筆錄以示之^{하노이다}

【校勘】

1) 燥亂: 아마도 躁亂의 誤植으로 보인다.

【字句解】

- (1) 甲: 凡物首出群類, 첫째 갑.
- (2) 委曲(위곡): 찬찬하고 자상함.
- (3) 歇: 息也, 쉴 쉼.
- (4) 霽: 雨止, 비그칠 제.
- (5) 晦: 昏也 昧也, 어둠 회.
- (6) 邂逅(해후): 우연히 만남.
- (7) 茅塞(모색): 띠가 나서 막힌다는 뜻으로 마음 이 욱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을 말함.
- (8) 鼯鼠(혜서): 새앙쥐.

- (9) 鈞(근): 古代 질량의 단위로 30斤을 말함.
 (10) 弩: 有臂機射, 쇠뇌 노.
 (11) 醢雞(해계): 술독 속의 초파리, 醢雞變喪天의
 줄임말로 초파리가 술독 안을 하늘로 여긴다
 는 뜻으로 견문이 좁은 것을 의미한다.
 (12) 坎蛙(감와): 우물안 개구리, 坎: 구덩이 감,
 蛙: 개구리 와.

【國譯】: 省略

4. 一提金貫珠數

【原文】

交⁽¹⁾霜降至春分^{하여} 冬月發者^가 爲正傷寒^{이니} 表證見者^는 用辛熱之藥大發汗^{이요} 裏證見者^는 用寒涼之藥急攻下^니 此^는 與非時傷寒不同治^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交春分至夏至前^{하여} 有頭疼發熱 不惡寒而渴者^는 爲溫病^{이니} 用辛涼之藥微解肌^요 不可大發汗^{이라} 裏證見者^는 用寒涼之藥急攻下^니 若誤下之^면 未必爲害^나 誤汗之^면 變不可言^{이니} 當須識此^라 三月後得此證者^는 爲晚發⁽²⁾ 이니 治法同表證^{이로데} 不與冬時正傷寒同治^{하며} 裏證은 治相同^{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交夏至後^에 有頭疼發熱 不惡寒而渴^은 此名溫病^{이요} 愈加熱者^는 名熱病^{이니} 止用辛涼之藥微解肌^{하고} 不宜大發汗^{이요} 裏證見者^는 止用大寒之藥急攻下^라 表證은 不與正傷寒同治^{이니} 裏證은 治相同^{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交秋至霜降前^에 有頭疼發熱 不惡寒 身體痛 小便短者^는 名溫病^{이니} 亦用辛涼之藥 加燥劑以解肌^{하고} 亦不宜大發汗^{이요} 裏證見者^는 用寒涼藥急攻下^{이라} 表證은 不與正傷寒同治^{이니} 裏證은 治相同^{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其春夏秋冬三時^에 有患頭疼身熱^{하고} 亦有惡寒者^는 卽是感冒非時暴寒之輕^{이니} 非比冬時正傷寒之重^{이라} 俱用辛涼之劑小發汗^{이요} 若裏證見者^는 用寒涼之藥急攻下^라 表證은 不與正傷寒同治^{이니} 裏證은 治相同^{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其四時^에 有患頭疼 發熱惡寒 身體倦痛 骨腿酸疼 自汗出 口微渴 脈空浮大而無力^은 名勞力感寒證^{이니} 當用溫

涼之劑溫經散寒^{하고} 切禁大發汗^{이요} 裏證見者^는 中和之劑加轉藥⁽³⁾ 微下之^{하고} 不可急攻利^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其四時^에 有患頭疼 身熱惡寒 老幼相轉者^는 名時疫證^{이니} 用辛涼之藥微解表^요 裏證見者^는 急攻下^라 從病制宜^{하고} 不與正傷寒同治^{니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若先起頭疼 發熱惡寒^{이라} 以後轉裏^{하면} 頭疼惡寒^이 皆除^{하고} 而反怕⁽⁴⁾ 熱 發渴謔語^{하고} 或潮熱自汗 大便不通^{거나} 或揭去衣被 揚手擲足^{거나} 或發斑黃 狂亂^{하니} 此爲陽經自表傳入陰經之熱證^{이니} 俱當攻裏下之^라 設或當下失下^{하여} 而變出手足乍冷乍溫者^는 因陽極發厥^{하여} 卽陽證似陰^{이니} 名陽厥^{이니} 急當下之^라 又有失於汗下^{거나} 或本陽證^에 誤投熱藥^{하여} 使熱毒入深^{하면} 陽氣獨盛^{하고} 陰氣暴絕^{하여} 登高而歌^{하고} 棄衣而走^{하며} 罵詈吶喊⁽⁵⁾ 하고 燥渴欲死^{하며} 面赤眼紅^{하고} 身發斑黃^{거나} 或下利赤黃^{하고} 六脈大^{하니} 名陽毒發斑證^{이니} 用酸苦之藥^{하여} 令陰氣復而大汗解矣^라 如大便實者^도 又當大寒之藥下之^니 此與發狂不同治^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若初病起無頭疼 無身熱^{이라} 就便怕寒厥冷 腹痛嘔吐 瀉利不渴 踴臥沈重 戰慄 脈沈細^는 此爲直中陰經眞寒證^{이요} 不從陽經傳來^니 當用熱藥溫之^라 如寒極而手足厥冷 過乎肘膝者^는 因寒極發厥^{이니} 名陰厥^{이니} 急當救裏溫之^요 此與陽厥不同治^라 又有初病起^에 外感寒邪^{하고} 內傷生冷^{하여} 內既伏陰^{하여} 內外皆寒^{거나} 或本眞陰^에 誤投涼藥^{하면} 使陰氣獨盛^{하고} 陽氣暴絕^{하여} 以致病起手足厥冷^{하고} 腰背重強^{하며} 頭眼眶痛^{하고} 嘔吐煩悶^{하며} 下利腹痛^{하고} 身如被杖^{하며} 六脈沈細^{하고} 渴飲不下^라 以後毒氣漸深^{하면} 咽喉不利^{하고} 腹痛轉甚^{하며} 心下脹滿^{하고} 結硬如石^{하며} 燥渴欲死^{하고} 冷汗不止^{거나} 或時鄧聲⁽⁶⁾ 하고 指甲面色青黑^{하니} 速灸關元氣海^요 須服大熱之劑溫之^라 此名陰毒^{이니} 令陽氣復而大汗解矣^라

若夏月^에 大發熱 頭疼燥渴 背惡寒 微汗 脈虛無力 口齒燥者^는 名中暑^니 用寒涼之劑清之^니 方論은 開在雜證中^{하니} 不再錄^{이라}

若病人身微熱 煩燥 面赤戴陽 欲坐臥於泥水井中 脈來沈細無力^은 此陰發躁^니 名陰躁^라 當用辛熱之藥溫之^요 不宜涼劑^니 誤用之^면 其躁急渴甚^{하여} 必死矣^라 若病人身冷 脈沈細而疾^{하며} 雖煩躁^나 不欲傾水入口者^는 此名陰盛格陽⁽⁷⁾ 이니 亦用

大熱之劑溫之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字句解】

- (1) 交: (시간이나 계절이) 될 교.
- (2) 晚發(만발): 伏氣溫病의 별칭으로 겨울에 감수한 寒邪가 잠복해 있다가 清明이 지나서야 늦게 발작하는 溫熱病을 말한다.
- (3) 轉藥(전약): 大便이 實한 것을 풀어 점차 내려가게 하는 藥.
- (4) 怕: 惡也 두려워할 파.
- (5) 罵罵叫喊(매리규함): 욕지거리를 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 罵: 욕할 매, 詈: 꾸짖을 리, 叫: 부르짖을 규, 喊: 고함질 함.
- (6) 鄭聲(정성): 正氣가 약하여 중복해서 말을 하며 말소리가 낮고 약하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하는 증후.
- (7) 陰盛格陽(음성각양): 체내에 陰寒이 치성하여 陽氣를 외부에서 가로막으므로 내부에서는 眞寒證이 나타나고 외부에서는 假熱證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格: 막을 각.

【國譯】: 省略

【原文】

- 傷寒에 失於汗下⁽¹⁾라야 使熱邪傳裏하면 燥渴謔語 小水⁽¹⁾ 自利 大便黑 小腹硬痛⁽¹⁾하고 或身黃⁽¹⁾은 是下焦蓄血如狂證이니 此與陽狂不同治요 宜下盡黑物則愈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初得病與表熱⁽²⁾하고 但狂言煩躁不安⁽²⁾하고 精采⁽²⁾ 不與人相當⁽³⁾은 此因熱結膀胱⁽²⁾라야 其人如狂⁽²⁾이니 太陽經之裏證也라 自有太陽經之裏藥治요 不與陽狂治法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小水不利 大便實 小腹滿 燥渴謔語 怕熱 身目黃⁽³⁾은 此名濕熱發黃이라 輕則疏利요 重則下之니 此與血證發黃不同治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失於汗下⁽⁴⁾하면 血熱不散 故⁽⁴⁾成發斑⁽⁴⁾하니 大抵不宜發汗이니 輕則化之요 重則下之라 起於胸腹⁽⁴⁾라야 先紅後赤者⁽⁴⁾ 曰發斑⁽⁴⁾이요 起於手足⁽⁴⁾라야 先紅後黃者⁽⁴⁾ 曰蚊迹⁽⁴⁾이니 臨病

之際에 宜詳審焉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 少陰證에 惡寒發熱 無頭疼⁽⁵⁾한데 誤以大發汗⁽⁵⁾하여 使血從耳目口中出者⁽⁵⁾ 名陰血이라 多不治니 此與鼻衄陽血不同治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 太陽證에 發熱惡寒 頭痛 或微喘 鼻中出血者⁽⁶⁾ 爲衄血이니 名陽血이라 須分點滴成流니 此與陰血不同治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失於汗下⁽⁷⁾라야 邪熱傳裏⁽⁷⁾하여 使水涸糞燥⁽⁷⁾라야 大便不通⁽⁷⁾하면 必發謔語⁽⁷⁾라 或心下硬痛 下利純清水 燥渴 口出無倫語⁽⁷⁾도 亦謔語라 凡此皆實⁽⁷⁾이니 當寒涼之劑下之⁽⁷⁾라 又有汗多亡陽⁽⁷⁾키나 或下後利不止 身疼痛⁽⁷⁾키나 或自利清穀 謔語者⁽⁷⁾는 凡此皆虛라 當辛熱之劑溫之⁽⁷⁾니 此與狂言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餘熱不除⁽⁸⁾라야 蘊⁽⁸⁾在⁽⁸⁾心胞⁽⁸⁾라야 使精神短少⁽⁸⁾라야 冒昧昏沈⁽⁸⁾하고 睡中言語一二句者⁽⁸⁾ 名獨語라 宜涼劑清之⁽⁸⁾니 此與謔語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⁹⁾은 因汗下後에 正氣虛而本音失 則鄭重⁽⁹⁾語散不知高下⁽⁹⁾하고 大小便自利 手足冷⁽⁹⁾을 名鄭聲⁽⁹⁾이라 宜中和之劑治之⁽⁹⁾니 此與獨語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 瘥後에 交接淫慾⁽¹⁰⁾라야 無病人反得病者⁽¹⁰⁾ 名陰陽易이라 宜清涼解毒之劑治之⁽¹⁰⁾니 此與女勞復⁽¹⁰⁾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¹¹⁾은 失於汗下⁽¹¹⁾키나 或因汗下後虛⁽¹¹⁾라야 令人氣逆不相接續者⁽¹¹⁾ 名短氣라 分虛實治之⁽¹¹⁾니 此與喘證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¹²⁾은 失於汗下⁽¹²⁾키나 或因飲水過多⁽¹²⁾라야 令人擡肩撮⁽¹²⁾肚⁽¹²⁾ 氣逆上者⁽¹²⁾ 名發喘이라 分表裏水氣治之⁽¹²⁾니 此與短氣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麻黃湯證⁽¹³⁾을 誤下之⁽¹³⁾라야 心下滿悶不通者⁽¹³⁾ 名痞氣라 分虛實治之⁽¹³⁾니 此與結胸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桂枝湯證⁽¹⁴⁾을 誤下之⁽¹⁴⁾라야 心下滿硬而痛⁽¹⁴⁾을 名結胸이라 分緩急治之⁽¹⁴⁾니 此與痞滿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證에 病一陽經⁽¹⁵⁾하고 或三陽經同病不轉者⁽¹⁵⁾ 名合病이라 分在經過經治之⁽¹⁵⁾니 此與併病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證에 一陽經先病未盡⁽¹⁶⁾한데 又過一經之轉者⁽¹⁶⁾ 名

併病이라 分在經在腑治之니 此與合病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을 或汗下太過거나 或恣飲冷水라야 水寒相搏라야 虛逆 聲濁惡而長을 名嘔이라 此與乾嘔不相類니 輕則和解 疏利요 重則溫散이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熱在胃口라야 與穀氣併하면 熱氣上薰하고 無物을 名乾嘔라 分實熱水氣治之니 此與嘔證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有頭疼 發熱惡寒 脈沈을 此名太陽脈似少陰이라 當辛溫之劑散之니 與少陰證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無頭疼 止則發熱惡寒 脈沈을 此名少陰證似太陽이라 當辛溫之劑散之니 與太陽證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頭疼 惡寒身熱者를 名表熱이라 以辛散之니 與裏熱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無頭疼 無惡寒反怕熱 燥渴口苦 舌乾謔語 大便實을 名裏熱이라 此與表熱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頭疼 身熱惡寒者를 名表惡寒이라 當辛甘散之니 此與裏惡寒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 傷寒에 無頭疼 無身熱 而惡寒 厥冷踈臥 不渴거나 或吐瀉腹痛 戰慄者를 名裏惡寒이라 當辛熱之劑溫之니 此與表惡寒不相類라 方論은 開在的本槌法中하니 不再錄이라

【字句解】

- (1) 小水: 小便.
- (2) 精采: 뛰어나다, 근사하다.
- (3) 相當: 엇비슷하다, 적합하다.
- (4) 蘊: 積也 蓄也, 쌓일 은.
- (5) 鄭重(정중): 엄숙하다, 심각하다.
- (6) 女勞復(여로복): 큰 病이 막 나아 精神氣血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는데 房事가 과도하면 陰精이 소모되고 腎氣가 손상되어 頭重不舉 眼花 小腹急迫絞痛 憎寒壯熱하며 때때로 陰火가 치솟아 頭面烘熱 心煩胸悶 食慾不振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7) 擷: 採取, 딸 血, 뜯을 血.

(8) 肚: 腹也, 배 두.

【國譯】: 省略

IV. 結 論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一提金』에 대한 관련 內容을 비교 고찰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第 1章 一提金啓蒙에서는 醫師의 基本지식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六經病에 대한 綱領, 脈象, 治法, 處方을 제시하였으며, 婦人과 老弱者의 傷寒治療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從乎中에 대하여 陽明과 少陽의 脈이 皮膚之下 筋骨之上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中의 의미를 皮부와 근골의 사이로 보았다.

第 2章 一提金六經證治捷法에서는 各經의 見證法, 辨證法, 診脈法, 用藥法을 제시하고 특히 用藥에서는 古方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겨울의 正傷寒에는 升陽發表湯(即加減麻黃湯)을 쓰고, 겨울의 傷風證에는 疏邪實表湯(即加減桂枝湯)을 쓰며, 봄 가을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羌活沖和湯을 쓰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加減沖和湯을 쓰며, 여름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神朮湯을 쓰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加減沖和湯을 쓴다고 하여 새로운 처방을 제시하였다.

第 3章 一提金脈要에서는 脈을 血도 氣도 아닌 營氣가 운행하는 道路로 보았고, 診脈할 때 손을 가볍게 대고 얻는 것을 '舉'라하고, 힘있게 눌러 취하는 것을 '按'이라하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찬찬하고 자상하게 구하는 것을 '尋'이라고 하여 診脈法을 설명하였으며, 陰陽 表裏

虛實 寒熱은 모두 浮 中 沈 三脈의 有力 無力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였다.

第 4章 一提金貫珠數에서는 正傷寒과 類傷寒의 구별, 계절에 따른 傷寒治法, 表裏證의 구별과 治法, 陰陽證의 구별과 治法 및 厥證 溫病 暑病 躁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發黃 斑疹 衄血 謔語 鄭聲 陰陽易 結胸 痞氣 合病 并病 등에 대하여 證候 脈 治法을 格言形式으로 설명하였다.

1991.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參考文獻

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影印本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5.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6. 吳謙 등, 醫宗金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喻嘉言, 醫門法律·上, 서울, 東南出版社 影印, 1986.
8.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影印, 1976.
9. 章楠, 醫門棒喝·上,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10.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11. 張仲景, 古本 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12.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13.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14. 鄒澍,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